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제자들"
성경	고린도전서 16:10~24
일시	2018년 01월 28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녹취 자료♣

•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분명한 ‘이유’와 ‘답’을 찾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로부터 말씀을 시작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 졌는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증거 해 주고 계신다. 사도바울은 크게 세 번의 선교사역을 했다. 그 가운데 ‘2차 선교사역’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다. 그 2차 선교여행 중에 세워진 세 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이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이 증거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는 ‘테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로 나타난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증거 되는 ‘고린도 교회’이다. 이 바울이 테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자를 피해서 이제 아덴(Athens)으로 도망을 간다. 아직 그 함께하는 팀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덴 지역을 돌아다니니 너무나 우상숭배가 심한 것을 보게 된다. 이 아덴은 그야말로 철학의 도시고 사상의 도시였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혜, 새로운 철학에 관심이 참 많았다. 그런데 의외로 그 아덴 지역은 우상이 너무 심각했다. 그 곳을 본 이 바울이 가슴이 너무 뜨거웠었다.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곳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은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는 바울에게 있어선 실패한 현상이기도 했다. 그런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 이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아덴 지역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결단과 각오가 하나 있었다. ‘내가 절대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증거 하겠다.’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과 그 능력만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리라.’라고 사도바울은 아덴 지역의 전도 실패를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각오를 갖게 됐다. 그래서 팀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실 사도바울은 이제 텐트(Tent)... 천막을 만드는 직업으로 이제 일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 한 가정이나 또 사연을 가지고 온 한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이 누구냐 하면 아굴라 가정이었다. 이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제결혼을 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이 가정도 역시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로마에서 쫓겨났다. 왜 쫓겨났냐 하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려버렸다. 그래서 가정과 모든 터전을 뒤로 하고 이들이 로마를 떠나게 된다.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실패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 속에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당하면 거기에서 주저앉고 결국은 무너져 버린다. 바울 속에... 바울이 실패한 아덴 사역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 했고...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불신자는 실패를 만나면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려고 한다. 그러나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시작’이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실패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말시라.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내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6:10~24)

10.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 형제 아블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권하라
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5. 형제들이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 이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7. 내가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교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18.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 주라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20.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1.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 요약 자료♣

제자들 (고린도전서 16:10-24)

1.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8:1-4)
 - 1) 바울의 아덴 전도 이후입니다.
 - 2)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있을 때입니다.
 - 3)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절대적 만남이었습니다.
2.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 1) 구원에 관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16)
 - 2) 성찬에 관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17-34)
 - 3) 제사 음식에 관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1-13, 10:1-33)
 - 4) 은사에 관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1-14:25)
 - 5) 분쟁에 관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0-17, 3:1-15)
3. 참된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 1)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교라는 제자들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6:1-24)
 - 2) 이 제자들은 전도자 바울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18)
 - 3) 아시아의 교회들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19)

고... 심지어는 학업과 삶에서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램넌트들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지혜를 체험할 기회다 라는 것이다. 구원 받은 성도에게는 두려울게 없고 실패라는게 없다. 우리는 무능하고 보잘 것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 삼으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절대로 여러분... 현실과 문제, 상황에 속지 마시라.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바울에게서 확인했고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게서 확인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것이다. 이 만남은 서로 약속 된 만남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시작하셨다. 저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만남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를 찾았다. 오늘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답이 없었던 방향시절이 다 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제가 만난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것을 저는 보았다. 그런데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기회이었다. 이 것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구원이 확신이 없었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진짜 응답을 받지 못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전도와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우리의 후대들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자라고 있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주셨다. 복음은 '굿 뉴스(Good News)'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와닿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는 정말 몰랐다. 정말 내가 죄인인지 몰랐고... 원죄의 배경 가운데 태어났음을 몰랐고... 제가 사탄의 함정과 울무에 묶여 있는지 몰랐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지옥'을 배경 삼고 있음을 몰랐다. 그 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다. 저뿐만이 아니다. 지금 앉아계신 모든 우리 중직자나 성도나 교역자나 모든 램넌트들이 이 답이 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때부터 지금까지 2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지키게 한 것이 뭔가? 여러분의 의지나 힘이 결코 아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또 확인해 봤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귀인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 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참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저는 행복하다. 아침마다... 또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때마다 저에게는 행복함이 찾아온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의 연약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감격이 된다. 그리고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만난 것을 생각하면 저는 진짜 가슴 벅차다. 원로 목사님 만남 것이 진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 분들 만난 것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 전도자로, 미래의 램넌트로 자라나고 있는 램넌트들을 바라보면 진짜 소망이 생긴다. 저는 어찌다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제가 서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첫 째는 오직 복음의 결론난 성도들을 통해 복음만 말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다. 그리고 계속 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 여기는 다민족이 살고 있는 미국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다. 하나님이 이 곳에 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지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237개국 다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지난 주에 제가 새벽에 기도수첩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됐다. 그 때에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가서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었던 헤롯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셨다.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사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익을 챙기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리였는데 그 곳에서 장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우상 성전과 같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서 그 곳에 모든 민족이... 열방이 주께 돌아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지으셨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다. 그래서 저는 확인하게 됐다. '아~!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2018년도에 세 개의 선교지를 정했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센추럴 어메리카(Central America)의 '온두라스'(Honduras)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온두라스(Honduras)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헌신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오는 '인도'를 복음화 해야 겠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가장 골치덩어리가 되는 '북한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해야 되겠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237개국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 개 나라를 먼저 살려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하여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더 소망 있는게 우리 램넌트들을 본다. 우리의 후대인 램넌트들... 태영아에서부터 대학, 청년들을 제가 쪽~ 본다. 애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다. 때로는 고집도 세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게임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문제도 많은 것 같다. 엄마, 아빠가 아주 골치덩어리다. 그런데 애들이 못 본게 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 램넌트라는 것을 모른다. 서밋이라는 것을 모른다. 볼 때까지 계속 놀 것이다. 진짜 보게 되면 공부 진짜 시작 할거고, 자기 아이덴티티(Identity)가 확인 되면 절대 방향하지 않는다. 그 때까지 부모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들 속에 정말 생명의 복음인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언젠가는 터치(Touch)하실 것이다. 방향 할 때는 방향해야 된다. 해답도 안 나면서 앉아있는 척 해봐야 그건 쓰임 받지도 못 한다. 저는 확신이 있다. 복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이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일 때 나가보라고 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한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보라고 한다. 근데 결국은 진짜 행복 없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때서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 지가 가 봐야 어딜 가겠는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지. 마귀 자녀라면 상관 없지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절대로 조금해 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그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 하나 치유 못 하실 것 같은가? 그의 방향하는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 할 하나님이신가? 절대 그런 분 아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불수록... 역사를 보면 불수록 하나님은 놀라우신 '전능자'이심을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이 램넌트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램넌트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소망을 얻는다.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세 가지 이유이다.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를 세워지기 위하여 세우셨다. '온두라스, 인도, 북한... 포함하여 237개국을 살릴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다. 그리고 세계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상 살릴 램넌트를 통해 세계복음화 할 발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 교회의 멤버(Member)가 된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 축하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천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엔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 오늘 여기 나와있는 다섯가지 이유 외에도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설명해주고 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절이다. 먼저 확인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뭔가? 부모님이 기도교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구원 받았는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인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그 증거가 있으셔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뭔지를 사람들

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은 증거하고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게 증거이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속에 생명의 주가 계신지. 그 성령께서 나를 터치(Touch)하고 계신지. 그게 증거이다. 그래서 구원 받은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다. 구원 받은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다. 그게 증거 중의 증거다. 다른 증거 찾지 마시라.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한다. 이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몰랐다. 또 하나... '성찬'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참 재밌는 교회다. 이 교회.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은 엄청 부유한 도시이다. 그리고 엄청 또 가난한 사람도 많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못된사람들이 있었다. 거기에 음식을 가지고 교회를 온다. 부자들은 뭘 가지고 오겠는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갖고 올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나마 교회 와서 조금... 한끼 식사라도 해결하려고 올 것이다. 근데 못된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하면 부자들이었다.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오다. 그리고 안 나눠주고 혼자 먹는다. 이라고 있다. 진짜. 아... 진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는가? 우리 램뉘트들도 혹시 맛있는 것 갖고 와가지고 눈치보면서 혼자 먹고... 이런 램뉘트들이 있는가? 안 나눠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줬다면... 안 나눠주는 거다. 혼자... 이게 성찬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여러분, 성찬이 도대체 뭐가? 예수님의 몸을 떼어주는 것 아닌가? 나누는 거다. 예수님이 왜 이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눠주려고 오셨지 않은가? 그게 바로 성찬이다. 예수님은 몸을 먹이러 했고 그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려고 오신 거다. 바로 이 성찬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메시지다. 그래서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는 생명의 약속인데... 이걸 모르는 것이다. 그게 성찬 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잘 몰랐다. 심지어는 밖에 이 고린도 지역에 우상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는 우상숭배한 그 제사 음식들이 막 팔렸다. 그래서 이 사 먹으려면 그걸 사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마구잡이로 막 먹는 거다. 그런데 처음 믿는 초신자가 왔을 때 그 음식은... '오?! 저건 우상숭배 음식인데 먹어도 돼?'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약한 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 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걸 먹을 수는 있지만 그 것 때문에 새가족들이 상처받는다. 그것 때문에 시험들이 교회들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먹는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도록 너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은 '교회의 유익'과 '신자의 덕'을 위해서 좀 삼가해라. 이 구약성경에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신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아주 큰 케이스(Case), 예가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그리고 시내(Sinai)산으로 40일 동안 모세가 들어갔다. 그런데 그 곳에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도자였던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낸 신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낸 신 이라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막 잔치하고 춤 추고 먹고 마시고 막 즐겨워 했었다. 그 때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내려왔다. 엄청 모세가 화를 냈다. 그리고 그 열두지파 중에 충성 된 헌신자인 레위 족속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상숭배 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다.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시나요? 장장 3천명이 죽었다. 이 우상숭배라는데 이렇게 무섭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을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해 주신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

님께 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과 교체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체하는 거다. 그 교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나겠는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만 숭배 해야 되는데 사단과 그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신다. 그래서 불신자가 우상숭배하며 개인, 가정, 후대가 계속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 이것을 주의 하시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 사실은 상관없다. 제물이면 어떻고 뭘든 어떻겠는가? 내가 먹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으시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절제하시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음료... 또는 음식... 여러분이 하는 행동...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시라. 이것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고 이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시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하면 하시라.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제사음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걸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각종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 모든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은 다 한 성령께서 주셨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다.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Gift, 은사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을까? 그 주신 이유가 하나이다.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다. 모든 성도는 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준 것이다. 이걸 자랑하는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약한자들을 돕고 채워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난 주에 주신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은사 중에 가장 구해야 될게 바로 뭐냐 하면 '사랑의 은사'이다. 그건 영원하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또 이 교회는 다름이 많았다. 이...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근데 사역자였던 바울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아볼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 사역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근데 바울도 아볼로도 다른 사역자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상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은가?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를 위하여 세운 사역자일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세대 아볼로 목사님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었다. 그런데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했는가? 결국 하나님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교회와 성도의 것들이 이들이 모른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 많은 사역자들은 '동역자'들이시다. 물론 기능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과 같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를 모르고 다투고 있던 말이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저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더라.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그러면 '성도의 기준'은 뭐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혼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태영아에서부터 목회자까지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너무 각인, 뿌리, 체질 돼있다. 그게 치유되지 않고 그게 벗어지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각인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련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태영아 어린애로부터 목회자까지 계속 말씀으로 혼련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없다. 그게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라.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

워질 때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를 못 한다. 그 말씀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훈련을 받으시라. 그래서 2018년도에는 많은 훈련 스케줄이 있다. 합숙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훈련들이 많다.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세상 나가면 혼란하고 우리가 갈등할 것이 많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혼란 느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보면서 혼란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홍수와 재앙이 일어나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세상의 것들을 '모래'라고 그런다. 모래로 지어진 집 위에 풍량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일어나면 금방 무너진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된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걸 '나의 말씀'으로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것'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 안 무너진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 위에 딱! 세워질 때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제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 사도바울은 편지를 쓰고 나서 맨 마지막 장에 이런 제자들의 이름이 꼭 들어가 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제자의 이름이 찍~ 한 장을 차지한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서 16장에도 제자의 이름이 기록 돼 있고. 또 에베소서 6장에도 제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도 제자들의 이름이 있다. 오늘 여기에 기록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이 제자들은 전부 복음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다. 개인 인생의 답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제자는 먼저 '구원의 답'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완전 결론이 나야 된다. 그리고 난 사람이 교회를 돕는 제자로 쓰임 받는다. 특히 여러분이 교회 안에 교사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이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다. 왜냐 하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돕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잘 아끼고 보호 해주라고 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태영아로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런 제자로 다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이다. 그리고 각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을... 말씀운동을 하는 그 집과 그 직업이 바로 제자들의 현장이다. 자, 결론을 맺고 마치겠다. 자 2018년... 이제 1월달...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린다. 시작을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있다. 여러분, 한 달여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시고 왔는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말씀'이다. 그래서 2018년도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뭐가?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이 말씀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첫 째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버려진 황무지' 같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이름으로... '성도'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씨앗인 복음을 심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라는 메시지다. 그리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셨다. 24시... 종일종야, 쉬지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다. 기도는 전부 응답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 그런다. "돌을 제하라"고 한다. "큰 길을 만들라"고 한다. 그래야 모든 만민들이 주께로 돌아올테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휴스턴 안디옥에 주신 말씀이다. 공통점이 뭐

가? 개인도, 교회도, 현장도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여러분은 그 응답에 주역들이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흐름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세가지를 꼭 찾으시라. 말씀은 계속 흘러간다. 성경 66권이 바로 말씀의 흐름을 알려준다. 교회는 바로 강단에서 말씀을 또 흘러준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2018년도에 두 단어를 꼭 잊지 마시라. 이 땅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다. 여러분 먼저 치유 받으시라. 그리고 영적인 이 치유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그래서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도제목이다. 이제 다음 달부터 제 22차 세계선교대회가 한국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선교대회는 22번째로 진행 되어지는 대회이다. RUTC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현재 57개국에서 약 800여명의 선교사님들이 등록이 됐다고 한다. 이 선교대회의 주제가 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이 바로 타이틀(Title)이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전해주시는 류복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 57개국과 237개국을 향해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이 선교대회는 사실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사실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당목사: 이 응남 목사 연락처: (713) 907-0854 이메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